



수레로 옮겨지는 소금 20일 오전 신안군 한 염전에서 염부가 이날 수확한 소금을 수레로 옮기고 있다. /뉴스시스

군공항 이전 탄력... “전남지사와 협의”

“국방부, 전남지사와 협의는 당연”...법령 해석 오류 인정

광주 군공항 전남지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3일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도지사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 1일 국방부에 보낸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서에도 이러한 요청 사항을 담아 제출했다. 이는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범위를 시장·군수에만 한정된 것은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

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15일 회신 공문을 통해 전남도에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권자로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리 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국방부의 법령 재해석 결과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추진 과정에서 예비후보지 선정 협의 주동권을 놓친 전남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력 예비 후보지를 중심으로 과장되고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주장이 난무해도 바라만 봐야 했던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효 기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로” 촉구

“전국 유일 2개 완성차 공장, 인프라 최상”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을 위한 첫 걸음”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자동차도시 광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제9대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23명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強)을 위한 첫 걸음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정무창 의장과 심철의·이귀순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2명과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이 모두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생태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광주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비전인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는 기아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자리잡고 있는 연간 72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자동차도시 중 한 곳이다. 2개의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또 진곡산단을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과 생산 거점으로, 빛그린국가

산단을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최근 유치한 미래차 국가산단을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성장동력도 갖추고 있다. 의원들은 “이를 기반으로 광주형 친환경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다는 점은 소부장 분야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자체 공급망 확보로 이어져 미래차하는 국가주력산업을 견인할 것”이라며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상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하남·소촌·평동·진곡·송암·본촌·빛그린산단 등 광주 전역에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기업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와 기

술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의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개별 기업과 지자체 차원의 미래차 전환 노력 속에 각종 연구개발과 규제 개선,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집중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역 자동차산업 전체가 발빠르게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역 경제계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의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도기 기자

문화경관도시 광주 조성...도시경관계획 확정

광주시 2040 목표 수립 완료...중점경관관리구역 7곳 확대

광주시가 장기적 도시경관 방향을 제시할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 계획은 오는 21일 공고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40 광주시 도시경관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광주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은 개성 있게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 수립하는 전략계획으로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는 2021년 5월부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경관의식조사·경관자원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번 경관계획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경관도시 광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속가

능한 가치개발 ▲활력있는 도시경관 연출 ▲경관자원 가능성 발굴이라는 3가지 목표 계획을 담았다.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대했다. 기존 2030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무등산 ▲송정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 등 4곳은 2040 경관계획에서 유지영산강 구역에는 광주천 추가 지정하면서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층건축물이 허용되는 상업지역인 ▲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 3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총 7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조선주 기자

‘글로벌대학30’ 예비 선정	2면
맞벌이 가구 역대 최대	4면
소금값 급등에 신안염전 한숨	9면

SUNCHEON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

호남매일 창사 23주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